

‘水’(물)의 유동성 표현 양상에 대한 인지적 연구

채춘옥*

목 차

1. 머리말
2. 인지의미론적 관점의 개념적 은유와 혼성 이론
3. 근원영역 ‘水’의 유동성에 따른 표현 양상
 - 1) 교통 영역으로의 사상
 - 2) 시간 영역으로의 사상
 - 3) 금융 영역으로의 사상
 - 4) 사유 영역으로의 사상
 - 5) 사건 영역으로의 사상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중국어 ‘水’ 관련 말뭉치의 자료를 기반으로 ‘水’의 유동성 표현 양상에 대하여 인지의미론적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水’를 근원영역으로 하여 이해 하려고 하는 목표영역의 개념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물의 움직임-유동성 여부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水’의 유동성에 따른 개념적 은유 양상을 살펴본 결과 교통 영역, 시간 영역, 금융 영역, 추상적인 사유 영역, 사건 영역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水’와 도로 상황, 시간과 자금의 흐름 등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동적 감각을 부여하여 물을 근원영역 중 하나로 사용하게 한다. 사람들은 신체적 경험과 감각적인 인지 활동으로 ‘추상적인 사유는 그릇 속의 액체이다’를 파생시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 ‘水’의 사건 영역은 어떤 사태 또는 변화하는 환경, 움직임의 원동력인 힘 등을 포함하며 물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객관적인 현상에 비유하여 추상

* 국민대학교 글로벌인문·지역대학 중국학부 중국어문전공 부교수

적인 이치도 표현한다.

키워드: 물, 개념적 은유, 개념적 혼성 이론, 영상도식

1. 머리말

‘水’는 인류의 생존, 생산,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사람들은 물에 대한 감각, 인식, 이해, 이용 등 과정에서 얻은 느낌과 경험을 주변 사람, 사물, 환경 및 사회 분야에 투사하여 ‘水’ 표현의 은유적 인지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水’류 단어들은 역사배경, 지리적 환경, 경제생활, 민속, 사람의 정신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水’에 대한 은유는 중국 사회에서 상당히 오래되고 관습화된 표현이 많은데 이는 사회 경험의 표현이다. ‘水’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를 살펴보는 것은 중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밝힐 수 있어서 ‘水’에 대한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水’를 주제로 하는 연구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국에서의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曾僑驕·于善志(2009)는 ‘水’ 관련 은유 표현을 8가지로 분류하고 그 근거로 체험성과 현저성을 들고 있다. 李楠(2017)에서는 ‘水’ 성어의 개념적 은유 표현을 운동, 힘, 여성, 감정 등 4가지로 나누었다. ‘成語中介符號論’을 기반으로 ‘顯象類’, ‘擬象類’, ‘借象類’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¹⁾ ‘水’ 성어에 관련한 정량적 분석은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개념적 은유 표현이 성어에만 국한되어 한정된 결과만 보여주었다는 점이 아쉽다. 方芳(2016)은 ‘水’의 개념적 은유에서 출발하여 종교, 고대문학, 성어, 관용어에서 나타나는 ‘水喻’의 특징을 밝혔고 문화가 은유적 사유를 제

1) 周光慶發現, 在成語的音義結合系統中, 語義是由兩種性質不同的符號逐層傳遞出來的, 而連接兩者的媒介便是意象, 周光慶稱之為“成語中介符號論”。

약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이중언어 대조 연구를 보면 張柳溪(2012)는 중국어와 영어에서 ‘水’의 은유적 표현은 ‘體驗性’, ‘生成性’, ‘系統性’, ‘辯證性’이 있고, 서로 다른 민족의 특유한 지리적 환경, 민족 심리, 사회적 가치관, 사유 방식 등이 은유 인지적 차이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阮德海(2018)는 중국어와 베트남어에서 ‘水’ 관련 단어의 구조, 의미, 인지, 문화 등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그 원인도 제시하였는데, 제6장에서 다루는 은유적 표현의 서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근원영역에서 ‘水’의 기능은 목표영역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상한다고 하였지만 ‘水漲船高’는 유리한 조건 또는 불리한 조건도 나타낼 수 있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또한 물의 ‘淸濁’이 목표영역에서 생활 상태나 환경을 나타내는 중국어의 예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주장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목표영역에서 어떤 상태나 환경을 나타내는 여러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에서 ‘물’ 관련 연구는 많지 않다. 전혜영(2020)은 한국어에서 ‘물’을 근원영역으로 하여 움직임과 관련된 ‘흐르다, 넘치다, 고이다, 새다, 스미다’ 등 동사 용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명사 ‘물’ 중심이 아닌 동사 중심으로 살폈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 다르다. 서평(2021)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물’을 소재로 한 관용어 표현에서의 은유적 의미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본체적 은유, 구조적 은유, 방향적 은유로 나누어 살펴보고 정량적 분석도 하였지만 한중 관용어의 일대일 대응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고 논의 중심은 이중언어 대조이다.

‘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를 보면 관용어, 성어 등에 한정되었거나 물의 모든 특징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은유적 표현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데 그쳤다. 많은 연구에서 예시가 부족하고 자세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水’ 관련 말뭉치의 자료를 기반으로 인지의미론적 관점에서 ‘水’의 유동성 표현 양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확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水’의 유동성에 따른 은유적 표현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²⁾ 은유 표현

2) 본고의 언어자료는 현대 문학뿐만 아니라 고대 문학작품에서도 선정하였고, ‘水’와 관

자료 대부분은 중국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의 CCL, 北京語言大學語言智能研究院의 BCC 말뭉치와 사전에서 추출하여 유형별로 정리하였다.³⁾

2. 인지의미론적 관점의 개념적 은유와 혼성 이론

Lakoff & Johnson(1980)은 은유를 지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 구조적 은유로 나누었다.⁴⁾ 첫째, 지향적 은유(orientational metaphors)는 상호 관련 속에서 개념들의 전체적인 체계를 조직화하는 은유이다. 둘째,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s)는 추상적인 사건, 활동, 정서, 생각 등을 구체적인 물건이나 물질로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물리적 대상, 특히 우리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경험은 존재론적 은유의 근거가 된다(노양진, 나익주 역 1995:49). 셋째, 구조적 은유(structural metaphors)는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구조화되는 은유를 말한다.

Lakoff & Johnson(1980)의 존재론적 은유 개념과 함께 Lakoff(1987)에서 제시한 영상도식을 이용하여 은유를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M.Sandra Peña(2003:53)은 은유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존재의 대연쇄

련된 어휘 및 동사 중심의 유동성도 논의 대상에 포함한다. 그리고 물의 유동성 관련 특징인 흐르는 상태, 막히는 상태, 고갈되는 상태 등을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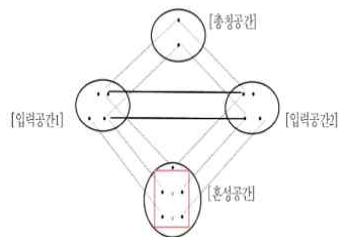
3) 본고에서 사용된 언어자료는 대부분 CCL, BCC 말뭉치에서 발췌하였고, 일부는 『中韓辭典』(2007), 『연세중중한사전』(2015), 『현대중한사전』(2009), 『在線成語詞典』, 『百度百科』 등에서 선정하였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水’에 관한 속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회 경험의 표현이다. 이런 은유적 속어의 이면에는 독특한 중국의 사고방식과 철학적 이념을 발견할 수 있다(말뭉치의 자료는 예시 뒤에 출처를 표기하고 사전에서 선택한 예시는 표기하지 않음).

4) Kövecses(이정화 외 역, 2003: 45-65)에서는 은유의 종류를 인지적 기능에 따라 구조적 은유, 지향적 은유, 존재론적 은유로 나누었다. 또한 개념적 지식에 의하지 않고 영상도식의 개념적 요소에 의해 근원영역에서 목표영역에 사상되는 영상도식 은유와 특정한 체험을 포착하여 단발성 영상을 가지는 이미지 은유(image metaphor)로 나누고 있다.

토대적 은유(Metaphor based kn Great Chain of Being)와 상황적 은유(Situational Metaphor)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Lakoff & Tumer(1989)에서 형식화한 것으로 존재론적 은유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자는 구조적 은유를 포함하고, 장면적인 은유적 사상과 경험적인 은유적 사상으로 한층 더 세분되며 영상도식 은유가 여기에 포함된다.

Zoltán Kövecses(저), 이정화 외(역)(2003: 216-217)에서는 두 가지 큰 은유 체계, 즉 존재의 대연쇄(The Great Chain of Being) 은유와 사건 구조(The Event Structure) 은유를 제시했다. 존재의 대연쇄 은유는 ‘물건’의 은유적 개념화를 포착하고, 사건 구조 은유는 사건과 상태의 변화를 포함하는 ‘관계’를 포착한다. 상황적 은유에서 장면적 은유는 기술할 수 있는 사건을 가리키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사건 구조 은유를 상황적 은유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인간은 동물과 (무)생물로, 은유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개념화가 하위 근원에서 상위 목표로 진행된다. ‘水’는 무생물이고 다양한 상태 변화로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은유적으로 개념화한다. 물건과 사건으로 간주하는 상당한 부분에 대한 은유적 개념화가 존재의 대연쇄 은유, 상황적 은유, 이 두 은유체계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⁵⁾

인지언어학은 개념적 혼성 이론(conceptual blending theory)을 통해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밝혀 한층 높은 설명력을 제공한다. 임지룡(2000:46)에 따르면 개념적 혼성 이론은 둘 이상의 입력공간에서 작용하는 인지능력으로, 입력공간(input model)은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이고, 중간공간(middle



(그림 1) 개념적 혼성 연결망

5) 대연쇄 은유와 상황적 은유의 사건 구조 은유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관계와 경력과 같은 개념들은 ‘사물’과 ‘사건’의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낸다. 이것은 어떤 목표 개념들은 사건과 사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Zoltán Kövecses(저), 이정화 외(역), 『은유』, 서울: 한국문화사, 2003, 248쪽.

space)은 총칭공간(generic space)과 혼성공간(blended space)으로 구성된다. 그 인지 과정은 ①입력공간의 구축, ②입력공간 간의 부분적 사상(mapping), ③입력공간에서 혼성 공간으로의 선택적 투사(selective projection)이다.⁶⁾ 본고에서는 존재의 대연쇄 은유, 상황적 은유 등 은유체계와 개념적 혼성 이론을 바탕으로 ‘水’의 표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 근원영역 ‘水’의 유동성에 따른 표현 양상

‘水’는 구체적인 실물이지만 심리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水’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水’는 인간 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생생하고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게 된다. 물은 늘 일정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때로는 평온하고 때로는 변동한다.

1) 교통 영역으로의 사상

‘水’의 유동성은 사회생활에서 교통 상황을 연상하기 쉽다.

(1)a 這里, 每天早上都門庭若市, 車水馬龍。人民日報(2002)

이곳은 아침마다 문전성시를 이루며 차들이 북적거린다.

b 人不僅可使用承載人流、物流的高速公路, 而且還可使用承載信息的高速公路。『哈佛經理知識修養』

사람은 인과, 물류를 실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정보를 실은 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c 人流、物流、資金流、信息流、川流不息的中國輕紡城, 蒸蒸日上。

6) 그림에서 사용된 약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검은 점은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요소, 실선은 입력공간 사이의 공간횡단 사상, 점선은 입력공간에서 혼성공간으로의 투사, 네모상자는 발현구조, 흰점은 혼성공간에서 새롭게 창조된 요소이다.

當代報刊 (1994)

중국 경방성은 인과, 물류, 자본, 정보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a ‘車水馬龍’은 ‘왕래하는 수레는 흐르는 물과 같고, 오가는 말은 꿈틀거리는 용과 같다’인데, 차가 그칠새 없이 많이 다님을 나타낸다. 비슷한 뜻으로 ‘流水游龍’, ‘馬如流水’가 있다.⁷⁾ b, c에서 도로 위의 실체인 사람과 사물, 심지어 추상적인 정보도 흐르는 물로 인지하여 개념화하여 표현한다.

Lakoff & Johnson(1980:30-32)에서는 우리가 사건(event), 행위(action), 활동(activities), 상태(states)를 그릇으로 인지한다고 하였다. 인간에게는 실체가 없는 개념이나 사건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경계를 부과하여 영역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다. 추상적인 대상에 경계를 부과하면 경계안과 밖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부과한 대상을 우리는 그릇(Container)으로 인지하기도 한다(최지훈, 2010:88). 물의 유동성의 특성으로 사람들은 도로 영역을 그릇으로,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사물을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로 인지한다. 사람들은 물과 도로의 유사한 연관성을 심리적 기반으로 하여 관련 은유적 단어들을 구성한다.

개념화의 사상관계를 존재론적 대응관계와 인식론적 대응관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車水馬龍’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⁸⁾

A 존재론적(ontological) 대응

| | |
|----------|-------------|
| 근원영역: 水 | 목표영역: 車 |
| 그릇 속의 물 | 도로 위의 차 |
| 액체의 물 | 고체의 사물 |
| 물의 양, 유동 | 사물의 수량, 움직임 |
| 그릇의 한계 | 경험화된 한계 |

B 인식론적(epistemic) 대응

7) 流水游龍: 比喻川流不息的車馬。 馬如流水: 形容人馬熙攘。

8)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175-176쪽을 참조함.

근원영역: 물의 유동 목표영역: 도로 위 사물의 움직임
 그릇 속에서 물이 흐른다 → 도로 위에서 차는 달릴 수 있다.
 그릇 속의 물은 그릇의 한계를 넘어서 증대할 경우 넘치게 된다. →
 도로 위의 차가 도로 한계를 넘어서 증대할 경우 붐비는 연속체를 형성한다.

위의 대응은 경험화된 차의 움직임을 물의 유동으로 개념화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b의 ‘人流’, ‘物流’는 ‘高速公路’라는 그릇에, c에서 도로 형상을 연상할 수 있는 ‘人流’, ‘物流’, ‘資金流’, ‘信息流’는 ‘中國輕紡城’이라는 더 큰 그릇에 담긴 것으로 인지하고 사람, 사물, 자금, 정보 등의 움직임을 물의 유동으로 개념화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그릇 속의 물이 유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 위의 움직이는 개체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움직이는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이다.

2) 시간 영역으로의 사상

자연계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사라져가며 보이지 않는 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른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물과 시간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주관적인 경험과 동적 감각을 부여하여 흐르는 물을 시간 개념의 근원영역으로 사용하게 한다.

- (2)a人之年華流逝不止, 河水不知何處去, 人生不知何處歸?
 세월은 흘러가고, 강물은 어디로 가고,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 않는가?
 b時光雖然像流水一般逝去, 但始終洗不掉這一幕難忘的悲痛場面。
 人民日報(1997)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지만, 잊을 수 없는 이 슬픈 장면은 끝내 씻어 버릴 수 없었다.
 c歲月如流水, 緩緩地流過, 流水如歲月, 漸漸地度過。
 『小城之戀』(王安憶)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이 천천히 흐르고, 흐르는 물은 세월과 같이 서서히 지나간다.

d光陰恰似東流水，一去不復回。『夢游天姥吟留別』(李白)

시간은 바로 동쪽으로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2)에서 보면 모두 세월(年華, 時光, 歲月, 光陰)을 흐르는 물(流水, 河水)로 개념화하였다. [시간은 물이다] 은유는 ‘水’인 근원영역과, ‘時間’인 목표영역 사이의 존재론적 대응관계에 기초한다. 물과 시간을 보면 전자는 형태가 있고 유동성이 감지되지만 후자는 직접적인 감지가 안 된다. 그러나 모두 밤낮으로 흐르고 있고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경로 영상도식과 관련된다. 경로 영상도식(path schema)은 출발지, 경로, 목적지, 방향의 구조적 요소로 이루어진 영상도식이고, 사물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거나 그 쪽으로 이동되는 상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영상도식은 아래와 같은 가정에 따라 분명해질 수 있다. 하나는 경로를 따라 근원지에서 목적지로 간다면, 경로 위의 각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경로를 더 멀리 갈수록, 출발 이후로 더 많은 시간이 지나간다.⁹⁾

3) 금융 영역으로의 사상

상품의 구매와 소비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은 유통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水’의 유동성은 금융 영역과 관련성이 있다.

(3)a經濟領域中的嚴重犯罪活動，是不是只發生在有“油水”或“油水”多的地方。福建日報(1982)

경제 분야 중 심각한 범죄 활동은 ‘이득’이 있거나 ‘이득’이 많은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닌가.

9) 임지룡(2006),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0), 1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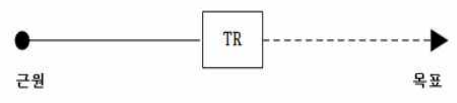
- b他們在當地每月薪水400元左右, 有時還不能正常發放。
『文匯報』(2000)
그들은 현지에서 한 달에 400위안 정도를 받는데, 때로는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c致富心切上了當四十萬元打水漂。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간절하여 사기로 40만 원을 날렸다.

(3)에서 ‘油水’는 부당한 이익이나 이득을 뜻한다. ‘薪’(땀값)과 ‘水’(수)는 생필품이므로 ‘薪水’는 생활에 꼭 필요한 물자를 비유하는 데 쓰였으며 현재는 봉급을 뜻한다. c에서 ‘打水漂’는 물에 팔매질(물수제비 뜨다)을 하는 뜻인데 괜한 돈 낭비를 하거나 돈을 날릴 때 많이 사용한다.¹⁰⁾

- (4) a生意好得出奇, 錢財如流水般進了他們的腰包。『科技文獻』
장사가 유난히 잘되어 돈이 물 흐르듯 그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왔다.
b有誰會拿錢當流水般無度揮霍? 『狂愛年少時』(紹寧)
누가 돈을 물 쓰듯 낭비하겠는가?
c如果這樣, 上海成爲物流、資金融、人流的中心匯聚地也爲期不遠了。
『文匯報』(2000)
이렇게 되면 상하이가 물류, 자금류, 인류의 중심지가 되는 것도 그리 멀지 않다.

(4)는 [돈(이득)은 물이다] 은유인데, ‘水’가 유동성이 있듯이 ‘錢’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로를 따르는, 많은 추상적인 상황을 개념화하는 경로 은유가 있다.

Lakoff & Johnson(1999)에서는 그림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탄도체(TR)가 근원지에서 행선지로 이어지고 있는 두 끝점을 연결하고



[그림2] Lakoff & Johnson(1999)의 근원지-경로-행선지 도식

있다.¹¹⁾ (4)a, c에서 ‘錢(財), 資金’은 사업파트너로부터 일련의 경로를 거쳐

10) ‘已經打水漂的事兒還提起有什麼用?’에서 ‘打水漂’는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에도 사용한다(比喻白白投入而沒有收獲).

‘他們, 上海’로 이동하게 된다. 주체인 사업파트너는 근원지이고, 수령자 ‘他們, 上海’는 행선지이며, 탄도체는 ‘錢(財), 資金’이다.

- (5)上半年銀行注入30萬元資金, 支持該廠添置設備。福建日報(1994)
 상반기에 은행은 30만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공장의 설비 추가 구입을 지원하였다.
 去年從國外流入資金90億美元, 比上年增加64%。人民日報(1993)
 지난해 해외 유입 자금은 9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水利部及下屬7個流域機構仍然滯留資金13.85億元。文匯報(2005)
 수자원부와 산하 7개 유역기구는 여전히 13억 8500만 위안의 자금을 체류하고 있다
- (6)有關部門凍結了股份公司的資金。人民日報(2000)
 관련 부서는 주식회사의 자금을 동결했다
 他還要求美國解凍伊拉克前政府的17億美元資金。人民日報(2003)
 그는 또 미국에 이라크 전 정부의 자금 17억 달러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 (7)每日存下一點小錢, 細水長流, 也會累積成一筆巨款。
 매일 약간의 돈을 저축하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

(5)에서 ‘注入’, ‘流入’은 모두 자금의 유입을 나타내고, ‘滯留’는 자금이 유통을 멈추고 침체된 상태를 나타낸다. (6)에서 ‘凍結’은 자금이나 자산의 사용이나 변동이 금지되는 것이고, ‘解凍’은 자금의 동결상태를 해제하거나 푸는 것을 나타낸다. 자금 사용의 금지와 해제를 물이 얼거나 녹아 풀리는 상반되는 상태로 개념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상기 예문에서 보다시피 만약 근원영역의 물이 얼어서 유동성이 사라지면 목표영역에서는 자금이나 자산이 동결되는 것으로, 얼음이 녹아서 유동성을 찾으면 자금이나 자산이 풀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7)에서 ‘細水長流’는 재물과 관련되며, 돈을 저축하거나 아껴 쓰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됨을 나타낸다.

11) 최지훈(2010),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 서울: 해안, 107쪽.

(8)a 股票市場潮漲潮落。

주식시장은 올랐다 내렸다 한다.

黃金價格隨市場潮漲潮落。

황금 가격은 시장 시세에 따라 조수처럼 오르내린다.

b 飼料價格一漲，生豬價格也水漲船高。

사료 가격이 인상되자, (도살용) 돼지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8)a의 ‘潮漲潮落’은 조수가 오르내림을 뜻하는데, 주식시장 또는 황금 가격의 변화와 기복을 나타낸다. b의 ‘水漲船高’는 물이 불어나면 배도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뜻인데,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수적인 상황도 변하기 마련이라, 사료가격이 오르면 사료를 먹는 돼지 가격도 오르게 됨을 나타낸다. 상기 분석에 근거한 ‘水’와 ‘資金’의 존재론적 대응관계는 그림3과 같다.

| | | |
|----------|-------|-------------|
| 근원영역:水 | | 목표영역:資金 |
| 유동-流動 | | 유통-流通 |
| 이동-移動 | | 전이-轉移 |
| 주입-注入 | | 투입-投入 |
| 동결-凍結 | | 사용 정지-停止使用 |
| 해동-解凍 | | 사용 가능-使用/兌換 |
| 수위 상승-漲水 | | 가격 상승-漲價 |

[그림3] ‘자금은 물이다’ 은유

4) 사유 영역으로의 사상

물은 맑고 투명하여 고요할 때는 거울과 같다. 그러나 또한 유동성 특징으로 끊임없이 순환 반복하며 낮은 지세로 흘러가는 등 지속적인 동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사상, 감정의 발전과 변화, 정서와 심경의 변화, 생각을 나타내는 말 등은 물의 유동성과 닮아 있어 물처럼 움직이고 만연하며 기복이 있다. 사람의 생각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활동적이며 막히기도, 통하기도, 고갈되기도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추상적인 사유 영역에는 인간의 사상, 감정, 태

도와 언어 표현, 그리고 인간으로서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혈육의 정, 우정, 애정 등을 포함한다.

- (9)a 問君能有幾多愁？恰似一江春水向東流。『虞美人』(李煜)
 그대에게 묻노니 얼마나 많은 슬픔을 품고 있는가, 봄날 강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듯하구나.
- b 便做春江都是淚，流不盡許多愁。『江城子』(秦觀)
 강물이 모두 다 눈물이 되어도 다 흐르지 못하고 시름만 남는다.
- c 抽刀斷水水更流，舉杯消愁愁更愁。
 『宣州謝朓樓餞別校書叔雲』(李白)
 칼을 뽑아 물을 끊으려 하나 물은 더욱 의연히 흐르고 잔을 들어 근심을 덜어내려 하나 마음속 근심은 커져만 간다.
- (10)a 無奈落花有意，流水無情，女方對他一點意思也沒有。
 떨어진 꽃잎은 의사가 있건만 흐르는 물은 무정하듯 여자는 그에게 조금도 마음이 없다.
- b 愛情不是激情，愛是等待，是細水長流。
 사랑은 열정이 아니라 기다림이고 변치않음이다。
 細水長流的友情，始終是以人品為基礎的。人民日報(2019)
 영원한 우정은 항상 인품을 기반으로 한다.
- (11) 說實在的，我听了這話，不能不有高山流水、知音猶在之感。『讀書』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말을 듣고 '고산유수'와 '지음'이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9)a에서 시인은 분방한 필치로 문답의 형식을 이용해 망국 군주 마음속의 긴 애수와 한을 토로하는데, 먼저 질문으로 '애수'(愁)를 드러내고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로 답을 한다.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넘실거리는 한을 넘치는 봄물로 개념화하여 형상적으로 표현하였다. b에서 세월의 야속함, 이별의 애수를 눈물로 개념화하여 봄물처럼 흘러내려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c에서 끝없는 고뇌와 걱정을 끊임없이 흐르는 물로 개념화하여 표현한다. (10)a에서 낙화는 뜻이 있건만 유수는 무정함을 나타낸다. 주로 짝사랑을 하는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것인데, 비슷한 성어로 '桃花流水', '流水桃花'가 있다. b에서 '細水長流'는 애정이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됨을

뜻하는데, 친구 사이의 우정에도 사용된다. (11)에서 ‘高山流水’는 높은 산과 흐르는 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자기 마음 속 가치를 잘 알아주는 참다운 친구(知音)를 나타낸다. ‘優美的音樂如高山流水, 令人陶醉’에서 ‘高山流水’는 아름다운 음악을 나타낸다.¹²⁾

(12)他的心中象煮沸的一鍋水那麼亂。『四世同堂』(老舍)

그의 마음은 끓는 가마 속 물처럼 어지럽다.

我腦子里像煮開了一鍋水, 緊張到了極點。

『性格溫和的女人』(陀思妥耶夫斯基)

내 머릿속은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것 같아 긴장이 극에 달했다.

(13)實踐告訴我們, 思維也有個潮漲潮落的時刻。福建日報(1994)

실천은 우리에게 사고에도 기복의 순간이 있음을 알려준다.

(14)沒有“心如止水”的能耐, 很可能過不了“三關”, 就會敗下陣來。

人民日報(1996)

고인 물과 같이 평온한 마음을 가질 능력이 없으면 ‘3관’을 넘지 못하고 패할 가능성이 크다.

(15)a看到這麼多人向自己伸出援助之手, 一股暖流頓時涌上他的心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자, 갑자기 훈훈한 기운이 마음 속에서 솟구쳤다.

b寫文章時, 他突然來了靈感, 思如泉涌。

글을 쓸 때 그는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 구상이 샘솟듯 하였다.

c聽到丈夫去世的消息後, 她禁不住淚如泉涌。

남편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샘처럼 쏟아져 나왔다.

d喜悅之情如泉水流入他的心田。

기쁨의 감정이 샘물처럼 그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e幸福和喜悅之情充溢在笑臉。新華社(2002)

행복과 기쁨이 얼굴에 가득하다.

(12)에서 혼란스러운 기분, 긴장된 마음은 끓는 물로, 평온한 감정은 고인

12) 춘추(春秋) 시대 유백아(俞伯牙)가 거문고를 타는데, 때로는 높은 산을 그리고 때로는 흐르는 물을 그리는 그 뜻을, 오직 종자기(鍾子期)만이 알아들었다는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home>

물로 개념화하여 표현한다. 물이 감정, 태도를 나타낼 때 온도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신체적 경험으로 보면 흥분, 감동, 분노 등 정서에 따라 체온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진다. 반대로 이러한 정서적인 파동이 없으면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인 파동을 끊는 물로 개념화한 것은 심리적인 소동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이다. (13)에서 우리 생각의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조수(潮水)의 기복으로 개념화하여 표현한다. (12)(13)의 불안정한 감정에 비해 (14)에서는 신념을 견지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평온한 마음-‘心如止水’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감정적 균형과 관련된 은유를 주목할 수 있다. 은유적 사상 ‘감정의 안정은 균형이다’와 그것의 논리적인 대응물인 ‘감정의 불안정은 균형의 결핍이다’에서 근원영역은 균형이고 목표영역은 감정이다.¹³⁾ 근원영역의 물이 균형을 이루면 안정적인 감정을, 불균형을 이루면 불안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15)에서는 훈훈함(暖流), 영감(靈感), 슬픔(淚), 기쁨(喜悅), 행복(幸福)이 솟구치거나(涌上), 흘러들거나(流入), 흘러넘치는 것(充溢)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감정은 그릇 속의 물이다’라는 그릇 은유로서 사람(마음, 머리, 얼굴)은 그릇이고 그 속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감정은 그릇 속의 물로 개념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16) 苦水去, 恬水來, 誰也不再作奴才。『茶館』(老舍)

고통은 가고 행복은 오니 아무도 더 이상 노비가 되지 않는다

(17)a 面對一次又一次的冷落, 王永義強咽苦水, 一次次耐心說服, 盡量求得對方的理解。人民日報(1996)

거듭되는 냉대에 왕용의는 애써 고통을 삼키고 매번 끈기 있게 설득하여 최대한 상대방의 이해를 구했다.

b 她哭着對媽媽倒出了滿肚子苦水。

그녀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속에 가득 찬 불만을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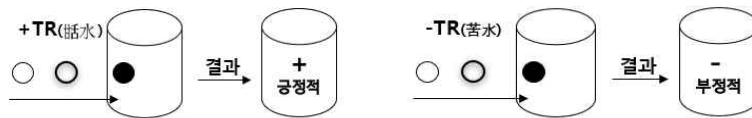
c 他見我就吐苦水。

13) M.Sandra Peña(저), 임지룡·김동환(역)(2006), 『은유와 영상도식』, 서울: 한국문화사, 400쪽.

그는 나를 만나기만 하면 괴로움을 해소연한다.

(16)에서 ‘苦水’는 고통, ‘恬水’는 행복을 나타내며 양극단의 느낌이 물과 같이 오고 갈 수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17)에서 고통, 불만, 괴로움 등 정서를 쓴 맛의 의미를 가지는 ‘苦水’로 개념화한다. ‘咽苦水’, ‘倒苦水’, ‘吐苦水’에서 보다시피 사람을 하나의 그릇으로 보고 그 속에 담고 있는 괴로운 정서를 밖으로 방출하거나 삼키는 것으로 표현한다. [사람은 그릇이다], [고통/행복은 그릇 안의 물이다] 은유를 통해 사람이 느끼는 다양한 정서가 그릇 안의 물로 이해되는 것이다.

위에서 보이는 많은 그릇 은유에 보였던 이동 양상은 경로 영상도식을 유발한다. 여기에서 경로 영상도식의 이동 양상을 도입함으로써 동기부여되는 그릇 영상도식의 동적인 사용으로 설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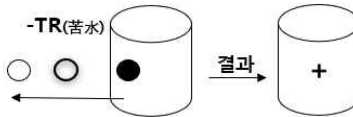
[그림4] 긍정적인 감정이 그릇 안으로 들어간다

[그림5] 부정적인 감정이 그릇 안으로 들어간다

그림4에서 사람은 그릇(지표)이고 감정은 침입자(탄도체)이다. ‘恬水來’와 같이 긍정적인 감정인 ‘恬水’가 그릇에 들어간다면, 이 감정은 주체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5에서 ‘咽苦水’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인 ‘苦水’가 그릇 안에 들어가고 주체인 사람이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감정은 주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 두 그림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로를 따르는 여행자로 개념화되는 탄도체는 감정(긍정적/부정적)이다. 둘째, 경로의 끝점과 동일시되는 지표는 사람이다. 셋째, 감정의 소유권이 전이되어 경로가 창조된다.

그림6에서 보면 부정적인 감정인 ‘苦水’가 그릇에서 떠난다면, 이것은 주체인 사람에게 이로울 수 있다. ‘倒苦水’, ‘吐苦水’는 괴로운 감정을 제거하는 것

인데, 감정은 주체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6] 부정적인 감정이 그릇에서 떠난다

우리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 글, 문장도 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릇 속의 물을 쏟듯이 마음 속의 생각을 말로 표출하는 것이다.

- (18)a 趙中和好像有一肚子的怒氣，滿嘴的話有如懸河瀉水，滔滔不絕，沒遮沒攔。『十面埋伏』(張平)
 조중화는 화가 잔뜩 난 듯, 입안에 가득 찬 말을 물 퍼붓듯이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데 거침없었다.
 b 他口若懸河，整整講了一個多小時。
 그는 꼬박 한 시간여 동안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쏟아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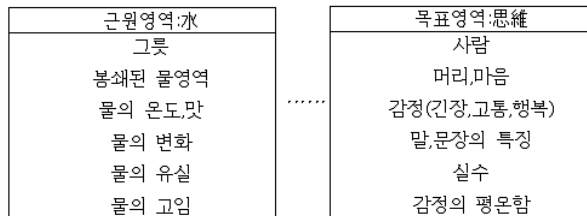
(18)에서 ‘懸河’는 폭포이고 ‘瀉水’는 물이 쏟아짐을 뜻하며, ‘懸河瀉水’는 말이나 문장이 자유롭고 끊임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滔滔不絕’는 청산유수처럼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 말이 많거나 유창하며 끊어짐이 없는 것을 묘사할 때 많이 쓴다. b에서 ‘口若懸河’는 말을 시작하면 술술 쏟아져 나오는 것이 마치 폭포가 넘쳐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언변이 좋고 말을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을 묘사하며 언변이 좋은 점에 치중한다. 비슷한 뜻의 성어 ‘滾瓜流水’는 매우 능숙하고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滾瓜’와 ‘流水’로 개념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19)a 這個人處世經驗十分豐富，平時說話做事滴水不漏。
 이 사람은 처세 경험이 많아 평소에 말을 하거나 일 처리 할 때 조금도 빈틈이 없다.
 b 在文章上講，是“盛水不漏”，無懈可擊的。
 글에서 보면 논리가 치밀하여 흠잡을 데가 없다.
 c 這篇文章的結構如行雲流水，層次分明。
 이 글은 짜임새가 자연스럽고 거침이 없으며 층차가 뚜렷하다.

d窮而後工, 波瀾老成。

역경에 처해 있을수록 기복이 있고 노련한 문구의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

(19)a에서 ‘滴水不漏’는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다는 뜻인데 말이나 일 처리가 조금의 빈틈이나 실수가 없음을 나타낸다.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涓滴不漏’, ‘點水不漏’는 조금도 새지 않는다는 뜻인데, ‘涓滴’, ‘點水’는 작은 물방울, 적은 물로서 극히 작거나 적은 것을 나타낸다. b에서 ‘盛水不漏’는 용기에 물을 담는데 조금도 새지 않는다는 뜻으로, 문장의 논리가 아주 치밀함을 뜻한다. c에서 ‘行雲流水’는 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인데, 글이나 가창 등이 막힘 없이 자연스럽게 유창함을 나타낸다. d의 ‘波瀾老成’에서 ‘波瀾’은 파도의 뜻인데, 여기에서는 문장의 기세가 웅장함을 나타낸다. 위에서 보면 ‘水’를 사람이라는 그릇 안의 내용물로 인지한다. 화자는 감정, 생각, 태도를 ‘水’로 개념화하여 사람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다.¹⁴⁾ 상기 분석에 근거한 ‘水’와 ‘思維’의 존재론적 대응관계는 그림7과 같다.



[그림7] ‘사유는 물이다’ 은유

인체를 커다란 그릇으로 본다면 사람들은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고 동시에 생각하는 바를 언어로 표현한다. 물은 유동성의 특성 때문에 늘 변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는 변환을 거듭하는 추상적인 인식과

14) 우리가 감정을 그릇으로 간주한다면 이런 감정 또한 내용물이라는 것을 함축을 통해 추리하듯이 ‘水’를 그릇으로 간주하면 ‘水’도 내용물임을 알 수 있다.

넓어있다. 사람들은 신체적 경험과 감각적인 인지 활동으로 ‘인체는 그릇이다’라는 기본적인 은유로부터 ‘추상적인 사유는 그릇 속의 액체이다’를 파생시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

5) 사건 영역으로의 사상

사건 구조 은유는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자신의 목표영역으로 갖는다. 사건의 측면에는 변화하는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변화 그 자체, 행동, 행동의 목적 등이 포함된다. 이 사건의 다양한 측면들은 은유적으로 위치와 힘, 이동과 같은 물리적 개념에 의해 이해된다.¹⁵⁾ 사건 영역은 어떤 사태 또는 변화하는 환경, 움직임의 원동력인 힘 등을 포함한다.

첫째, [‘水’는 어떤 사태이다] 은유인데, 물의 움직임은 사태로 사상한다.

(20)a 一群小人在背後掀風鼓浪。

소인배 무리가 배후에서 풍파를 일으킨다.

b 有的人趁機興風作浪，想混水摸魚。

어떤 사람은 기회를 틈타 소동을 일으킨 다음,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한몫을 챙기려고 한다.

c 推濤作浪，製造事端。

풍파를 일으켜 분쟁을 만든다.

d 他這是在無風起浪，發泄私憤。

이것은 그가 생트집해서 개인적인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21) 譬如這一件事，大約也不過花上八千兩銀子，就可以風平浪靜了。

『糊塗世界』(吳趸人)

이런 일 같은 것은 은전 팔천 냥쯤만 쓰면 바로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다.

(20)의 ‘掀風鼓浪’, ‘興風作浪’, ‘推濤作浪’에서 ‘掀風, 興風, 作(鼓)浪, 推濤’

15) Zoltán Kövecses(저), 이정화 외(역), 『은유』, 서울: 한국문화사, 2003, 242쪽.

는 풍파를 일으킴을 뜻한다. 나쁜 것을 조장하여 소동이나 말썽을 일으켜 부정적인 사태를 일으키는 것으로, 문장에서는 소인배나 어떤 사람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d의 ‘無風起浪’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인데, 생트집을 잡거나 까닭 없이 사고가 일어남을 나타낸다. ‘風平浪靜’은 풍랑이 일지 않고 잠잠함을 뜻하는데, (21)에서는 은전 팔천 냥을 쓰면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사태를 잠재울 수 있음을 나타낸다.

(22)a俗話說：兵來將擋，水來土掩。咱先作好防備工作，也就有備無患了。

『努爾哈赤』(李文澄)

병사가 오면 장수가 막고 물이 오면 흙으로 막는다. 우리가 먼저 대비 잘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

b這樣的結局讓我有水落歸槽的感覺。

이런 결말은 나를 마음이 놓이게 한다.

c這個案子總有水落石出的一天。

이 사건은 언젠가는 진상이 낱알이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22)a에서 ‘兵來將擋，水來土掩’은 병사가 공격해 오면 장군이 막고, 물이 밀려오면 흙으로 막는다는 뜻인데, ‘水’는 어떤 홍수와 같은 재난이나 사건, 사고를 지칭한다. 이 문장에서는 사전 대비를 잘하면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방법이 있음을 나타낸다. b의 ‘水落歸槽’는 범람한 강물이 제 굽에 흘러든다는 뜻인데, 염려하던 일이 결말이 나서 마음이 놓이게 됨을 나타내며 ‘水’는 어떤 일을 지칭한다. c에서 ‘水落石出’은 수위가 내려가면 물밑의 돌이 드러나는 것으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짐을 나타내는 것인데, 물은 사건이고 돌은 진상을 지칭한다.

둘째, [‘水’는 환경이다] 은유인데 물의 상태는 어떤 환경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환경은 사물이 처한 추상적인 시공간을 나타내며 변화 상황도 포함된다. 물의 변화는 목표영역에서 환경의 변화 즉 새로운 국면, 현황, 결과로 나타난다.

- (23)a學習如同逆水行舟, 不進則退。
 학문은 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
- (24)a他急流勇退, 回到老家過起了平淡的生活。
 그는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 낙향하여 조용하게 살고 있다.
 b以爲鬧騰下去連身家性命都難保住, 於是就急流勇退, 辭教歸里。
 『新亂世佳人』(黃蓓佳)
 소란이 계속되어 자신과 가족의 목숨도 건지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교사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 (25)a怎樣才能經得起市場競爭的狂風惡浪。人民日報(1995)
 어떻게 해야만 시장 경쟁의 광풍과 격랑을 견뎌낼 수 있을까?
 b每年有許多新企業成立, 也有許多企業破產, 潮漲潮落, 這本是極爲平常的事。報刊精選(1994)
 매년 많은 새로운 기업이 설립되고, 또 많은 기업이 파산한다.
 조수처럼 오르내리는 이러한 변화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
 c人生的道路上充滿了驚濤駭浪, 我們要有勇氣去迎接挑戰。
 인생의 길에는 거칠고 사나운 파도가 가득하니 우리는 용기를 내어 도전에 응해야 한다.
 生活就是斗争, 是同惊涛骇浪的搏斗, 而不是悠閑的旅行。
 『壯行集·祝福走向生活的人們』(魏巍)
 생활은 곧 투쟁이요, 격랑과의 격투이다. 유유자적한 여행이 아니다.
- (26)國家的經濟發展了, 我們的生活水平也會水漲船高的。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면 우리의 생활 수준도 따라서 향상된다.

(23)a에서 ‘逆水行舟’는 물살을 거슬러 배를 몰다는 뜻인데,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배와 같이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됨을 나타낸다. ‘逆水’는 어려운 처지나 고난을 나타내며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한다. 이는 어려운 환경을 물살을 거슬러 가는 것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24)의 ‘急流勇退’는 급류에서 과단성 있게 뱃머리를 돌려 빠져나옴을 뜻한다. a에서는 관직이 아직 순조로울 때 관계(官界)에서 물러남을 나타내고, b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환경에서 일찌감치 빠져나옴을 나타낸다. ‘急流’는 문맥에 따라 긍정적인 환경 또는 부정적인 환경을 보여준다. (25)a에서 ‘惡浪’은 사나운 파도인데, 문장에서는 시련이나 고난을 나타낸다. ‘狂風惡浪’은 매

우 위급하고 험악한 시장경쟁을 나타낸다. b의 ‘潮漲潮落’은 조수의 오르내림을 뜻하는데, 문장에서는 기업의 흥망성쇠를 잘 보여준다. c에서 ‘惊濤駭浪’은 거칠고 사나운 파도를 뜻하는데, 인생과 삶에서의 모질고 어려운 시련 또는 매우 위험한 환경을 나타낸다. (26)에서 ‘水漲船高’는 물이 불어나면 배도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뜻인데, 주위 환경의 변화인 ‘국가의 경제 발전’에 따라 부대 상황인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을 표현한다.

(27)a談判還是一潭死水, 一點進展也沒有。

회담은 여전히 침체상태로 전혀 진전이 없다.

b人走了, 資金沒有了, 公司這次真是到了山窮水盡境地了。

사람도 떠나고 자금도 없어서 이번에 회사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27)a에서 ‘一潭死水’는 연못에 고여 있는 물을 뜻하는데, 회담이 오랜 기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교착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준다.¹⁶⁾ b에서 ‘山窮水盡’은 산길과 물길이 막바지까지 다다르다는 뜻으로 궁지에 빠지거나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됨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山崩水竭’, ‘山崩川竭’이 있는데 산이 무너지고 하천이 말라버린다는 뜻으로, 고대에는 중대한 사변이나 그 징조로 여겼다. 물 유동성의 멈춤, 막힘, 마름 등 변화는 안 좋은 환경이나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8)a覆水難收, 夫妻倆不可能和好了。

한번 었지른 물을 다시 담기 어렵듯이 부부가 재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b反水不收, 後悔無及。『後漢書·光武帝紀上』(南朝·宋·范曄)

이미 었지른 물은 다시 담기 어렵고, 지나간 일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16) 비슷한 성어로 ‘死水微瀾’(中國也刮過一陣『飄』風, 可是在出版界中也不過是死水微瀾而已。『讀書』58)이 있다. 고여 있는 물에 약간의 물결이 이는 것을 뜻하는데, 침체되어 있는 답답한 국면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29)你沒听過說出去的話如潑出去的水嗎? 『追求愛情不排隊』(喬楚)

너는 내뱉는 말이 었지른 물이라는 것을 듣지 못했느냐?

(30)按照當時的觀念“嫁出去的女儿, 潑出去的水”。

『天生絕配鬧翻天』(陳明娣)

당시의 관념에 의하면 ‘시집간 딸은 출가의외인’이다.

‘覆水難收’, ‘反水難收’는 한번 었지른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는 것인데, 잘 못된 일이라면 만회하기 어렵고, 기정사실이라면 되돌리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28)a에서와 같이 헤어진 부부의 재결합이 어렵다는 것을 었지른 물을 담지 못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¹⁷⁾ (29)에서 ‘潑出去的水’는 ‘었지른 물’이라는 뜻으로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옴을 나타낸다. (30)에서 ‘潑出去的水’는 시집간 여자는 출가의외인이라는 의미이다. 시집간 딸은 친정 사람이 아니고 남이나 마찬가지로 사용된다.

(31)a不是我給你潑冷水, 是你能力確實有限。

내가 너한테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

他的話簡直像當場澆了她一桶冷水似的。 『谷莊佳人』(黃苓)

그의 말은 마치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찬물을 한 통 부은 것 같았다.

b听说股票狂跌, 他如冷水澆頭, 所有的希望都破滅了。

주식이 폭락했다는 소식에 그는 찬물 맞은 것처럼 모든 희망이 깨져 버렸다.

(32)a你不要背後給他潑臟水。

너 뒤에서 그 사람을 증상모략하지 마라.

b他最討厭在背後沖冷水的人。

그는 뒤에서 홍보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33)a你也來了, 只會把水攪渾的。

너까지 끼어들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야.

b你就是這個解決法呀? 分明是攪渾水來了!

『艷陽天』(浩然)一百三十五章

17) 비슷한 뜻으로 고사에서 유래한 ‘馬前潑水’, ‘買臣覆水’가 있는데, 부부의 이혼을 돌이킬 수 없듯이 일이 확정되면 돌이킬 수 없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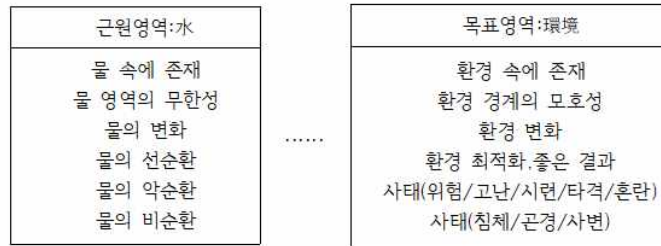
당신은 이 해결책뿐인가요? 분명히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네요!
 c 往往被男權意識形態有意無意地攪渾水, 使人很難察覺。
 『讀書』(191)
 종종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무의식적으로 헛갈려서 사람들이 알아
 채기 어렵다.

(31)a, b에서 ‘冷水’는 온도가 낮은 물을 뜻하는데, 의외의 타격을 나타낸다. ‘潑冷水’, ‘澆冷水’, ‘冷水澆頭’는 불상사를 당하거나 계획이 허사가 되는 것을 나타낸다. 누군가 찬물을 끼얹는 것은 분위기나 흥을 깨는 것이며 이로 부터 희망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의외의 타격을 받는 것이다. (32)a에서 ‘潑臟水’는 구경물을 끼얹는다는 뜻인데, 중상모략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려 비방함을 나타낸다. b에서 ‘沖冷水’도 뒤에서 남의 흥을 보는 것을 나타낸다. 차가운 물은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분위기를 흐리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등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33)에서 ‘把水攪渾’, ‘攪渾水’는 모두 물을 휘저어 흐려놓는다는 뜻인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시비를 헛갈리게 하여 형세나 사상을 혼란시킴을 나타낸다.

사람의 신체적인 경험과 심리적 인식의 유사성은 인지 주체가 자신이 있는 무형, 무한한 공간을 물리적 ‘물 영역’으로 사상한다.¹⁸⁾ 사람들은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물의 움직임과 물 온도의 차이는 환경의 변화로 느낀다. 물의 흐름에 따르는 것은 선순환이고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어떤 위험, 고난, 시련을 겪는 것으로, 인위적인 행동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타격을 입히거나 형세를 어지럽게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처럼 ‘水’를 ‘환경’에 사상하는데 환경은 구체적일 수도 추상적일 수도 있다. 상기 분석에 근거한 ‘水’와 ‘環境’의 존재론적 대응관계는 그림8과 같다.

18) 張柳溪(2012), 「漢英隱喻認知對比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33쪽.



[그림8] '환경은 물이다' 은유

셋째, ['水'는 힘이다] 은유이다.

물은 운동과 에너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 물이 생산하는 에너지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물의 유동성은 동력을 방출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때로는 얼음으로 굳어지고 때로는 증기로 방출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람들은 '水'를 지구력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물질로 인지한다. 중국인들은 물을 운동과 힘의 상징으로 여기며, 사회 경험을 통하여 물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객관적인 현상에 비유하여 추상적인 이치를 표현한다.¹⁹⁾

(34)a 靠你的一點工資去治病, 簡直是杯水車薪。

너의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강에 돌 던지기야.

b 書籍的銷售是應該細水長流的。『讀書』(15)

책의 판매는 반드시 끈기 있게 해나가야 한다.

c 除了第一場落後, 以後的比賽可謂打得順風順水。

첫 경기를 제외하고, 이후의 경기는 순풍에 돛을 단다고 할 수 있다.

(35)a 近一個月時間, 社交網站可謂是風生水起。

최근 한 달 동안 SNS가 성행했다.

b 生活不再是一潭死水, 到處泛起了層層浪花。

생활이 더 이상 고인 물이 아니라, 도처에 겹겹이 물보라가 일었다.

19) 『老子』曰：“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強者莫之能勝, 以其無以易之。弱之勝強, 柔之勝剛, 天下莫不知, 莫能行。”

(36)a水滴石穿, 只要持之以恆, 什麼事還干不成呢?

낙숫물도 댕돌을 뚫는데,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할까?

b這是一種艱苦的工作, 需要耐心細致, 水磨功夫。

이것은 인내심과 세심한 노력, 정교한 솜씨가 필요한 힘든 작업이다.

(34)a에서 ‘杯水車薪’은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의 장작에 붙은 불을 끄려 함을 뜻하는데, 어떤 사물이 지나치게 미미하여 일을 하는 데에 효과나 영향이 전혀 없음을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b에서 ‘細水長流’는 가늘게 흐르는 물이 오래 흐른다는 뜻인데, 미약한 힘이나 끊임없이 일을 끈기 있게 해 나가면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c의 ‘順風順水’는 수면이 평온하여 항해가 순조로움을 뜻하는데, 경기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됨을 나타낸다. (35)의 ‘風生水起’는 발전이 빠르거나 재물운이 일어남을 뜻하는데, 아주 빨리 발전해 나감을 이르는 말이다. b의 ‘一潭死水’는 오랜 기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고인 물로써 활력이 없는 침체된 상태를 나타내고, ‘層層浪花’는 겹겹이 일어나는 물보라를 뜻하는데 활력이 있는 생활을 나타낸다. (36)의 ‘水滴石穿’은 낙숫물이 댕돌을 뚫는다는 것인데, 작은 힘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성공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水磨’는 물을 부어가며 간다는 뜻이고, ‘水磨功’은 세밀하고 정교한 솜씨를 나타낸다. 물은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비하여 ‘風生水起’, ‘層層浪花’와 같은 강함뿐만 아니라 ‘細水長流’, ‘滴水穿石(水滴石穿)’, ‘水磨功夫’와 같이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는 것도 나타낼 수 있다.

(37)a流水不腐, 戶樞不蠹, 也就是說生命在於運動。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도리는 썩이 슬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생명은 움직이는 데 있다는 말이다.

b俗語說月盈則虧, 水滿則溢。²⁰⁾

속담에 달도 차면 기울고 물도 차면 넘친다고 하였다.

(38)歷史和現實告訴我們, 水可載舟, 亦可覆舟。人民日報(2002)

역사와 현실은 우리에게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엎어버릴

20) 出自清·曹雪芹『紅樓夢』, 指事物發展到極端就向相反方面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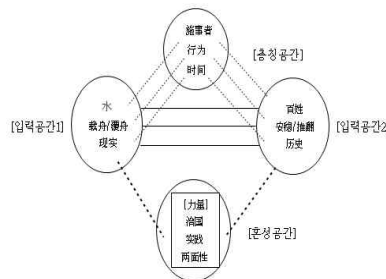
수도 있음을 알려준다.

(37)에서 ‘流水不腐, 戶樞不蠹’는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도리는 썩지 않는다는 뜻인데, 항상 움직이는 사물은 외부의 것에 쉽게 침식되지 않고 오래도록 탈 나지 않고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水滿則溢’은 물이 차면 넘치게 된다는 뜻인데, 사물이 극에 달하면 쇠락하는 것을 비유하며 유의어로는 ‘物極必反’, ‘樂極生悲’ 등이 있다. (38)에서 ‘水可載舟, 亦可覆舟’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인데, 하나의 사물에 양면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水可載舟, 亦可覆舟’는 국가흥망이나 정권 안정에 백성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들은 물의 이러한 특징에서 출발하여 은유를 통해 치국 등 세상의 이치를 많이 표현하였다.²¹⁾

(38)은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입력공간1](근원영역)에는 ‘水’, ‘載舟/覆舟’, ‘現實’, [입력공간2]

(목표영역)에는 ‘百姓’, ‘安穩/推翻’, ‘歷史’ 등 요소가 포함된다. 두 입력공간의 공통되는 추상적 구조인 [총칭공간]은 도식적 정보인 ‘施事者’, ‘行爲’, ‘時間’ 등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런 요소들은 두 입력공간의 연결에 동기를 부여한다. [총칭공간]의 추상적 구조는

또다시 두 입력공간으로 투사되고 두 공간의 유사한 요소들이 서로 사상되며, 선택적으로 [혼성공간]으로 투사되어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 혼성공간에서 조합 과정, 완성 과정, 확장 과정을 거쳐 ‘[力量], 治國, 實踐, 兩面性’이라는 새로운 의미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혼성 이론에서는 ‘水(載舟/覆舟)-치국에



[그림]의 '水'의 개념적 혼성 연결망

21) 水可載舟, 亦可覆舟出自『荀子·王制』, 意思是水可以載着舟行駛, 同樣也可以讓舟覆滅。唐太宗李世民常用此話告誡衆人, 久之成了李世民的“名言”。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home>

서 백성의 결정적 작용, 실천 속에서 한 사물의 양면성'이라는 뜻이 혼성공간에서 창발되는 것으로 본다.

(39)a他平時學習十分刻苦, 拿獎學金是水到渠成的事情。

그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장학금을 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b既然大家都同意了, 我就只好順水推舟了。

모든 사람이 동의한 이상 나도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네요.

(40)a大批優秀人才在後浪推前浪的激烈競爭中不斷涌現。『科技文獻』

뒤 파도가 앞 파도를 밀어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b中國的體育事業生機勃勃, 新人迅速成長, 大有後浪推前浪之勢。

중국의 체육 사업은 매우 활발한데, 신인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세대교체의 추세가 뚜렷하다.

(39)에서 '水到渠成'은 물이 흐르는 곳에 도랑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데,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나 해결됨을 나타낸다. '順水推舟'는 물의 흐름에 따라 배를 미는 뜻인데, 상황에 맞춰 말하거나 대세를 따라 행동함을 나타낸다. '水到', '順水'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보여주고, '渠成', '推舟'는 이런 환경에 따른 결과와 행동을 나타낸다. (40)의 '後浪推前浪'은 뒤에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다의 뜻으로 낡은 것을 밀어내고 새것으로 바꾸거나 세대교체 또는 신진인사로 대체함을 나타낸다. 이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공간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 지는 것을 뒤에 서게 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표현하였다.

Lakoff & Johnson,(1999)에서는 시간 지향(Time Orientation)은유를 '관찰자의 위치→현재, 관찰자의 앞의 공간→미래, 관찰자 뒤의 공간→과거, 대상→시간, 관찰자를 지나쳐 가는 대상의 운동→시간의 경과'로 사상됨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일상 언어에서 위 은유와는 정반대인 [미래는 뒤이다], [과거는 앞이다]라는 은유도 가능하다.²²⁾ (40)에서 신세대는 미래-'後浪'이고, 구세대는 과거-'前浪'이다. 이 경우에는 사람이 정지해 있고 시간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는 은유가 되며 시간은 뒤에서 우리의 앞으로 다가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미래는 뒤이다] 은유에 의해 동기 부여받은 관용구이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水’가 중국어 표현에서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되는지를 인지의미론적 개념을 적용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水’의 유동성 여부에 따른 개념적 은유 양상을 살펴본 결과 교통 영역, 시간 영역, 금융 영역, 추상적인 사유 영역, 사건 영역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람들은 ‘水’와 도로의 유사한 연관성을 심리적 기반으로 하여 관련 은유적 단어들을 구성한다. 둘째, ‘水’와 시간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주관적인 경험과 동적 감각을 부여하여 흐르는 물을 시간 개념의 근원영역 중 하나로 사용할게 한다. 셋째, ‘水’가 유동성이 있듯이 ‘資金’도 유통성이 있다. 만약 근원영역의 물이 얼어서 유동성이 사라지면 목표영역에서는 자금이나 자산이 동결되는 것으로, 얼음이 녹아서 유동성을 찾으면 자금이나 자산이 풀리는 것으로 이해한다. 넷째, 사람의 사상, 감정의 발전과 변화, 정서와 심경의 변화, 생각을 나타내는 말 등은 ‘水’의 유동성과 닮아 있어 물처럼 움직이고 만연하며 기복이 있다. 마음속의 애수(哀愁)와 한(恨), 사랑(愛情), 우정(友情)을 나타내며, 훈훈함(暖流), 영감(靈感), 슬픔(淚), 기쁨(喜悅), 행복(幸福)이 물처럼 솟구치거나(涌上), 흘러들거나(流入), 흘러넘치는 것(充溢)으로 표현한다. 이는 [감정은 그릇 속의 물이다]라는 그릇 은유로서 사람은 그릇이고 그 속의 감정은 그릇 속의 물로 개념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불안정한 감정도 나타내는 데, 근원영역에서의 불균형은 목표영역의 불안정한 감정으로 사상한다. 말뚝

22) 최지훈(2010),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 서울:혜안, 121쪽 재인용.

치 자료의 그릇 은유에서 보였던 이동 양상은 경로 영상도식을 유발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聒水’, ‘苦水’와 관련한 예시는 경로 영상도식의 이동 양상을 도입함으로써 동기부여되는 그릇 영상도식의 동적인 사용으로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신체적 경험과 감각적인 인지 활동으로 [인체는 그릇이다]라는 기본적인 은유로부터 [추상적인 사유는 그릇 속의 액체이다]를 파생시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 다섯째, 사건 영역은 어떤 사태 또는 변화하는 환경, 움직임의 원동력인 힘 등을 포함한다. [물은 어떤 사태이다] 은유는 어떤 사태를 자유방임하거나, 소동을 일으키고, 트집 잡거나, 반대로 조용하게 사태를 잠재움을 나타낸다. 또한 재난이나 사건, 사고를 지칭하거나 반대로 염려하던 일이 잘 해결되거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짐도 나타낸다. [물은 환경이다] 은유에서 환경은 사물이 처한 추상적인 시공간을 나타내며 변화 상황도 포함된다. 물의 변화는 목표영역에서 환경의 변화 즉 새로운 국면, 현황, 결과로 나타난다. [물은 힘이다] 은유에서 보면 중국인들은 사회 경험을 통해서 물을 운동과 힘의 상징으로 여기며 추상적인 이치도 표현한다. 이러한 이치는 개념적 혼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혼성공간의 창발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參考文獻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편저, 『中韓辭典』, 서울: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출판사, 2007.
- 박영중, 『현대중한사전』, 서울: 교학사, 2009.
- 중중한사전편집위원회, 『연세중중한사전』, 서울: 연세대학교대학출판문화원, 2015.
- 홍만호·이승권, 『한중사전』, 牡丹江: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12.
- 서평, 「‘물’과 관련된 한·중관용어의 의미형성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임지룡, 「개념적 은유에 대하여」, 『한국어 의미학』 20, 2006.
- 임지룡, 『인지의미론』, 서울: 탐출판사, 1997.
- 전혜영, 「‘물’을 근원영역으로 한 은유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52집, 2020.
- 최지훈,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 서울: 혜안, 2010.
- CAO ZHENNA, 「한중 ‘물’과 ‘불’ 관련 관용어의 은유 의미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G. Lakoff & M. Johnson(저), 노양진·나익주(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서광사, 1995.
- Lakoff, G.(저), 이기우(역), 『인지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1995.
- M.Sandra Peña(저), 임지룡·김동환(역), 『은유와 영상도식』, 서울: 한국문화사, 2006.
- Zoltán Kövecses(저), 이정화 외(역), 『은유』, 서울: 한국문화사, 2003.
- 李楠, 「含“水”成語語義及文化內涵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7.
- 方芳, 「“水”意象的隱喻衍生機制」, 『安徽理工大學學報』第18卷,第2期, 2016.
- 阮德海, 「漢、越語“水”族詞語對比研究」, 廣西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18.
- 張柳溪, 「漢英“水”隱喻認知對比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 曾僑驕·于善志, 「論漢語“水”的概念隱喻」, 『寧波教育學院學報』第11卷,第5期, 2009.
-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2023.01.10-02.25

北京語言大學語言智能研究院 <http://bcc.blcu.edu.cn/> 2023.01.10-02.25

在線成語詞典 <http://cy.5156edu.com> 2023.01.10-02.25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home> 2023.01.10-02.25

Abstract

A Cognitive Study on Expression Aspects of Fluidity of 'Water (水)'

Chae, Chun Ok

This thesis tried to clarify how 'water (水)' is used to understand which concept in Chinese expression by applying the cognitive semantic concept to it based on corpus materials related to 'water (水)'.

In order to closely analyze what concept of the target domain to try to understand 'water (水)' by making it the source domain, the scope was limited to whether there is its movement-fluidity or not. The result which examined aspects of conceptual metaphor according to whether there is fluidity of 'water (水)' or not could be found that it is used in the traffic, temporal, finance, abstract reason, and case domains. 'Water (水)', road conditions, the streams of time and funding, etc. make people use water as one of the source domain by giving them a dynamic sense. The people derive 'abstract reason is liquid in a bowl' from their physical experience and cognitive activities. The case domain of 'water (水)' includes situations, changing environments, power which is a motive force of movements, etc. and expresses abstract reason by comparing it to objective phenomena in a metaphorical way. This reason can be explained by the conceptual blending theory and the emergent characteristics of the blending space that is not explicitly caught in the conceptual metaphor theory can be seen in it.

Key words : Water, Fluidity, Conceptual metaphor, Conceptual blending theory, Image schematic

투 고 일 : 2023. 4. 10. / 심 사 일 : 2023. 4. 15.~ 2023. 5. 15. / 게재확정일 : 2023. 5. 20.

